

적으로 .. 동지로 .. 고향 선·후배 그라운드 누빈다



광주 동성고 출신 KIA 양현중.



광주 진흥고 출신 삼성 임창용.

함께 프로야구 선수의 꿈을 키웠던 이들이 동료와 적으로 그라운드를 누빈다.

‘무등산 폭격기’의 거침없는 피칭과 ‘바람의 아들’의 질주를 보면서 우상처럼 되기를 꿈꾸었던 소년들. 각 팀을 대표하는 주축 선수로 우뚝 선 광주·전남 출신 선수들이 꿈의 그라운드에서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 5일까지 세 경기 연속 매진 사례가 이어졌던 챔피언스필드. 이곳에서는 금의 환향한 선수들을 맞이하려는 가족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상대팀으로 광주를 찾은 넥센에는 유독 지역 출신 선수들이 많기 때문이다.

일단 엄경엽 감독과 이강철 수석코치부터 광주일고 동문 사이다. 5일 선발 라인업에도 톱타자 서건창(광주일고), 유격수 강정호(광주일고), 지명타자 이성열(순천 효천고)이 자리를 잡았다.

서건창은 1회에만 1안타 1볼넷 2도루를 기록하는 등 3안타 경기를 하며 맹활약을 했다. 강정호는 해의 진출 예기가 나올 정도로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대형 유격수로 성장을 했다. LG-두산을 거쳐 넥센 선수가 된 이성열은 어머니가 지켜보는 앞에서 두 경기 연속 홈런을 날리며 손을 번쩍 들어올렸다. 매서운 눈빛으로 유명한 문우람(동성고)은 대주자로 고향 무대에 섰고, 넥센의 막내 하영민(진흥고)도 기분 좋은 고향 나들이에 나섰다.

고졸 신인인 하영민은 진흥고 2학년 때 팀을 대통령배 우승팀으로 이끈 뒤 성 부름 떡잎이었다. 그리고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하며 넥센의 미래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4월13일 한화와의 경기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른 하영민은 5이닝 3피안타 2볼넷 1탈삼진 1실점의 활약으로 통산 5번째 고졸 신인 데뷔전 선발승의 주인공이 됐다.

광주일고 시절부터 대형 신인으로 주목을 받았던 한화의 좌완 유창식도 올 시즌 ‘7억 루키’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유창식은 7일 등판 전까지 1.82의 평균자책점으로 2승을 수확하며 데뷔 4년 만에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미완의 대기에서 마운드의 희망으로 주목 받고 있는 투수 이태양도 여수서초-여수중을 거쳐 효천고를 졸업한 지역 출신이다. 한화에는 프로야구에 족적을 남긴 ‘야구의 신’ 이종범(광주일고) 코치와 ‘타격의 달인’ 김종모(동성고) 코치도 있다.

두산 전력의 큰 부분도 광주출신 선수들이 장악하고 있다. 지난해 포스트시즌에서 두드러진 배짱투를 보여줬던 투수 윤명준이 동성고 출신이고 두산의 안방마님 양의지는 진흥고를 졸업했다. 내야에서도 3명의 선수가 엔트리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고등학교 시절 안치홍(KIA)·김상수(삼성)·오지환(LG)과 ‘청대 유격수 4인방’으로 이름을 날렸던 허경민이 광주일고 출신. 3루수를 수성하는 이원석과 재치 있는 타격과 수비로 호시탐탐 주전 자리를 노리고 있는 최주환은 동성고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NC에서는 광주출신 선수들이 한방을 책임지고 있다. 챔피언스필드 첫 홈런의 주인공인 나성범(진흥고·5개)과 베

광주·전남 출신 선수들 프로야구 주축 자리매김

동성고 좌완 에이스 양현중, KIA 에이스 우투 넥센 강정호 MLB서 탐내는 대형 유격수 성장 진흥고 출신 삼성 임창용 한·일통산 300S 달성 넥센 루키 하영민 고졸 데뷔 선발승 ‘통산 5번째’



넥센 강정호.



한화 유창식.



넥센 문우람(왼쪽)과 두산 양의지.



KIA 이태양.

출신 학교별 각팀 주요 코치·선수

광주일고	김병현·이태양(KIA) 엄경엽 감독·이강철 수석코치·서건창·강정호(이상 넥센) 유창식(한화) 허경민(두산) 이호준·모창민(NC) 정성훈·정찬현(LG) 여건욱·김성현(SK) 이종범 코치(한화)
동성고	양현중(KIA) 문우람(넥센) 윤명준·최주환(두산) 노진혁·임창민(NC) 문선재(LG) 박준서(롯데) 이원석(두산) 김종모 코치(한화)
진흥고	하영민(넥센) 양의지(두산) 나성범(NC) 손주인(LG) 임창용·정형식(삼성)
순천 효천고	차명진(KIA) 이성열(넥센) 이태양(한화)
화순고	김선빈(KIA)

태양 이호준(광주일고·5개) 그리고 모창민(광주일고·3개)이 13개의 홈런포를 쏘아올리며 팀 홈런의 50%를 만들어 냈다. NC의 1군 연착륙에 힘을 보탠내야수 노진혁과 투수 임창민도 동성고를 졸업했다.

LG에서 제 2의 인생을 펴고 있는 내야수 손주인은 진흥고에서 프로 선수를 향한 꿈을 꿔고, 정성훈도 광주일고 하면 빠지지 않는 선수다. 빈발 퇴장으로 이슈가 됐던 투수 정찬현(광주일고)과 포수 보는 내야수로 화제가 됐던 문선재(동성고)도 다른 유니폼을 입고 뛰는 선수들이다.

광주일고 1년 선후배 사이인 투수 여건욱과 내야수 김성현은 SK에서 조금씩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중이고, 동성고 출신의 박준서는 올 시즌 롯데의 캡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진흥고를 대표하는 수호신 임창용(삼성)은 7년 만에 국내에 돌아와 프로야구 역사를 바꾸고 있다. 국내 북구전에서 2408일 만에 승리투수가 됐던 임창용은 얼마 전 한·일통산 300세이브 고지까지 밟았다. 임창용은 구단 특별격려금 2000만원을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에게 기부하기도 했다. 한술밥을 먹고 있는 외야수 정형식도 임창용의 고등학교 후배다.

물론 KIA에 가장 많은 지역 출신이 분포해 있다. 올 시즌에는 ‘해잡수왕’ 김병현이 트레이드로 고향에 돌아오면서 광주일고 빅리거 3인방이 19년 만에 다시 같은 유니폼을 입었다. 또 FA를 통해 ‘슈퍼 소닉’ 이태양(광주일고)이 고향에 돌아와 챔피언스 필드를 누빈다. 양현중은 더욱 들쭉날쭉한 피칭으로 동성고 에이스를 넘어 KIA 에이스로 등극했다. 김선빈은 화순고가 배출한 슈퍼스타다.

1군 무대를 그리는 특급 루키도 많다. 2014 신인드래프트에서 우완 차명진(효천고)이 KIA의 우선 지명을 받았고, 광주일고 출신의 내야수 강민국(동국대)은 NC의 우선지명을 받으며 가장 먼저 프로행을 확정지었다.

넥센 하영민을 비롯해 SK 박규민(동성고), 롯데 문동욱(동성고-건국대)등 3명의 투수가 2차 1라운드 선수로 선택을 받기도 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보약, 흥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흥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흥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